

임실N치즈축제, 위상 뽐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서 큰 인기 끌어

지난해 대한민국 3대 최우수 문화관 광축제로 선정된 임실군의 대표축제 임실N치즈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서 큰 인기를 끌며 그 위상을 뽐냈다.

군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 임실N치즈축제 등 임실 관광 홍보를 위해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는 각 지자체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규모 행사로, 임실군은 '2025 임실N치즈축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군은 임실N치즈 이벤트를 진행하며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축제 홍보 영상과 2025 임실 방문의 해 관광안내책자를 활용해 지역 관광도 함께 홍보했다.

특히 육정호 봉어섬 생태공원과 출렁다리, 임실치즈테마파크, 왕의 숲인 성수산과 사선대, 오수 의견관광지 등 임실군의 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한 다양한 퍼포먼스로 박람회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은 올해 임실N치즈축제는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마을·임실을 일일에서 더 특별하게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 선보인 대표 프로그램 △국가대표 밀키트 쌀피자 만



임실N치즈축제

(사진=임실군청 제공)

들기 △임실N치즈 애플로 페어이드 △임실N치즈페어 △임실N치즈 대형 풍뎉 등을 더욱 완성도 높게 준비하면서, 숙성치즈와 무가당 요거트 활용 프로그램도 더욱 확장한다.

특히 저지종 젓소의 원유를 활용한 숙성치즈 연계 프로그램을 보다 새롭게 풍성하게 준비하는 등 색다른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민 참여도를 높이면서 관광객 체류형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과 매력적인 콘

텐츠를 구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추진된다.

심 민 군수는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그간 10년을 쌓아온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을 알리는 성공적인 2025 임실N치즈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대표 축제 박람회 참가를 시작으로 임실N치즈축제가 대한민국 축제 문화를 선도하고,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든 명성을 펼칠 수 있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미식열차

시, 전북 미식관광 활성화 공모 선정 따라 코레일 연계해 운영
5월 춘향제 기간 첫 운영, 15회에 걸쳐 운행 원푸드 메뉴 제공

남원시는 전북 미식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남원이 선정되면서 남원에 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코레일을 연계한 미식열차 운영으로 특별한 미식 여행을 선보일 예정이다.

미식열차는 남원에서 생산된 신선한 식자재를 활용한 특별한 메뉴와 디자

인 개발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맛을 관광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5월 춘향제 기간 첫 운영을 시작으로 5월에 15회에 걸쳐 운행될 예정으로, 남원의 특산물 매력을 더한 '원푸드'의 독창적 로컬 메뉴도 제공할 계획이다.

미식열차를 이용한 관광객들은 기차 안에서부터 남원 로컬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즐기며 여행을 시작하고, 남원에 도착한 후에는 춘향제와 관련된 문화 행사 및 관광 명소들을 체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미식관광 공모사업을 통해 남원시가 미식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고유한 식문화와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새로운 관광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주니어보드, 청년 캠프서 우수사례 공유

전북시군연맹 청년캠프 참여
꿀팁모음집 등 우수사례 소개

임실군 주니어보드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주최하는 2025년 전북시군연맹 청년 캠프에 참여한 청년 조합원 앞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발표에서는 임실군 노사문화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수여에 큰 역할을 한 '꿀팁모음집', 과 서무들을 위한 멘토형 매뉴얼인 '과 서무의 모든 것' 등 임실군 주니어보드 활동 중 우수한 사례가 소개됐다.

임실군 주니어보드는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업무방식 변화와 상·하급자 간 소통의 힘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하고 1년 7개월간 활동 중 얻었던 노하우를 전달하는 등 임실군 청년 정책의 우수 사례가 다른 지역에 서도 꽃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 주니어보드의 우수 사례 공유는 지역 청년 정책의



임실군 주니어보드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주최하는 2025년 전북시군연맹 청년 캠프에 참여한 청년 조합원 앞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모범 사례로 캠프에 참가한 청년 공직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며 "앞으로도 청년 공직자가 주도하는 정책 발

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의회 문화유산관광발전연구회, 문화유산관광 활성화 논의

남원시의회 '문화유산관광 발전 연구회' (대표 의원 강인식)는 지난 24일, 관계자 및 연구위원들과 문화유산관광 활성화 및 연구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 및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

해 결성되었으며, 강인식 대표 의원과 김정현, 오동환, 소태수, 한명숙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 방향성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문화유산 가치와 관광의 조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연구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발과 연구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정기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이 4월 5일,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유네스코 장 담그기 문화' 등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장 담그는 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장 담그기 문화, 순창에서 빛나다

내달 5일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서 행사 다채

(재)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운숙)이 4월 5일,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유네스코 장 담그기 문화' 등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행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23번째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재단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 장문화의 세계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을 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창군은 예로부터 맑은 물과 깨끗한 환경, 최적의 기후조건 속에서 질 좋은 장류를 생산해 온 고장이다.

특히 순창고추장은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될 만큼 그 명성이 높았으며, 이번 유네스코 등재는 순창의 전통 발효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값진 성과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는 순창군을 한국 전통 발효 문화의 중심지로서 국내외에 더욱 알리고, '한국 발효문화의 시원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관광객이 함께하는 장 담그기 퍼포먼스 △전 문가의 지도로 진행되는 도시민 장독대 분양 체험 △순창 고유의 방식으로 전수받는 고추장 만들기 체험 △발효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발효쿠 키클레스 등이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순창발효테마파크와 연계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할 응모권 이벤트가 진행된다. 고추장 명인의 특별한 선물 세트부터 순창발효미생물캐릭터 인형 등 다채로운 기념품이 제공돼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순창발효관광재단 선운숙 대표는 "이번 행사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장 담그기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순창의 장류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한국 전통 발효문화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세한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순창발효관광재단 홈페이지(<https://st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창=이왕원 기자

‘2025년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 선정

순창군립도서관, 4-9월

구립한사랑지역아동센터서

아동들과 독서프로그램 운영



순창군립도서관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한 '2025년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구립한사랑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함께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독서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에 대한 흥

미를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순창군립도서관은 구립한사랑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 센터 소속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견학과 체험 △책 읽어주는 사서 선생님 △작가와와의 만남 △독서지도 강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 체험 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남원시,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사업 추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진 공모사업 선정 따라

남원시가 '2025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지원금 1,500만 원으로 도박 중독 예방 사업을 위한 중독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도박 경향이 있는 청소년과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중독 및 공동의존 예방을 위한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도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도박 문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한 일탈을 넘어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2차 범죄 연계 가능성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보건의료원

영농철 맞아 조기 진료

임실군 보건의료원(원장 김대곤)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료 시간을 30분 앞당겨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진료 시간이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변경된다.

진료 시간 변경은 농촌지역 특성상 영농철에 아침 일찍 의료원을 찾는 내원 환자들이 많아 진료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바쁜 농사철에 지역 주민들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실시하는 조기 진료는 영농철이 끝나는 가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가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주행 중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차량 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12월 1일 이후 신규 구매되거나 명의를 변경된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적용된다. 남원소방서에서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가 파손·변형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운전석이나 동승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덕과면, 봄철 산불

안전사고 예방 나서

남원시 덕과면 행정복지센터는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지난 28일 2층 회의실에서 긴급 덕과면 이장 회의를 추진하였다.

이번 덕과면 비상소집 회의에서는 마을 이장들에게 관내에서 속속들이 발생하는 산불 발생 현황 및 내용을 전달하고 산불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전파, 특히 인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언급하며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큰 사건이므로 우리 덕과면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산불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 갖기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성월계 덕과면장은 논두렁, 밭두렁 소각 및 산림지역 근처 쓰레기 태우기를 철저히 금지하고 이장들에게 매일 하루에 세 번씩 산불방지 마을 방송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산 불발 감시원들에게 근무지 정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혹여나 산불 발생 시 빠른 초동 대처 및 보고를 지시하여 산불 예방 및 근무 기강을 확립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